

# 중국, 부동산 버블 억제 대폭강화

## 국무원 긴급고지로 거품 강력억제 천명 ... 토지가격 감시 강화 촉구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집값 상승 움직임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중국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가 7월19일 공동발표한 <국무원 긴급고지>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강력 억제할 방침이라고 7월20일 보도했다.

고지는 “지방당국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제멋대로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규제를 이미 완화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방당국이 토지가격 감시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시장의 전반적 구도는 바뀌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동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장의 복잡성과 불안정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방은 주택용지 공급계획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건설 부지를 반드시 마련해주고 계획 달성률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6월 70개 주요 도시 중 25곳의 분양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폭은 모두 0.6%를 밑돈 것으로 집계했다.

5월에는 6개 도시만 가격이 상승했었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2차례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은행들이 대출금리 우대경쟁을 벌이고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를 부추기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집값 상승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7월7일 “부동산 시장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3>